

신참 변호사에게 비친 언중위



허중혁 | TV조선 사내변호사

신참 변호사로서 개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에 입사한 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외주제작 등의 계약서 검토, 저작권 협상, 일본 업무 등 여러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라 한다)에 신청된 조정사건과 법원에 제기된 언론소송 등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7건의 언론소송과 15건의 언중위 조정사건을 담당하면서 언론분쟁 영역은 나에게 새로운 전담 영역이 되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프레젠테이션 15층의 언중위를 드나들어야 했고 피신청인의 입장 뿐 아니라 신청인의 입장도 경험할 수 있었다.

보수 언론사에 몸담고 입는 입장이라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주 진보 언론들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매일 틈나는 대로 인터넷상의 기사를 검색하고 수집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대선이 있었던 해라 여당 및 야당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담긴 사건도 처리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심적인 부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언중위에 신청된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즐겁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힘들고 난감했던 기억들이 더 많다.

어떤 신청인은 방송국의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법원 제소까지 동시에 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리에 임했고, 1차 심리에서 합의가 안 되어 2차 심리기일까지 속행이 되었는데 그때쯤 소장이 회사로 송달되었다. 당시 무척 당혹스러웠고 그 사건을 통해 언중위 절차에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무엇이건 쉽게 인정해주는 우리의 법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소를 제기한 입장에서 굳이 언중위를 거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피신청인과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언론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며 가뜰이나 많은 사건의 처리로 바쁜 국가기관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소권의 남용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언중위가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기일불출석 또는 절차 지연과

같은 당사자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현행 법률의 개선도 바라고 싶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공을 들여 답변서를 제출한 후, 언중위에 출두하여 심리를 통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그때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 기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얼마 후 담당부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고 뿌듯한 보람과 함께 흐뭇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다.

우리 방송국의 공익목적 보도가 뜻밖에도 자막에 실수가 있는 바람에 인터뷰 대상이 되었던 신청인에게 피해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음식점을 하는 신청인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 식재료를 쓰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던 보도였기 때문에, 우리 측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해명보도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합의문안을 작성하여 기명날인을 받기 위하여 일산에 있는 신청인의 식당으로 갔었는데, 언중위 변론 때에는 무서워 보였던 신청인이 매우 부드러운 얼굴로 밥이나 먹고 가라면서 한사코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보도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던 신청인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기에 감사인사를 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를 배웅하는 신청인의 얼굴은 참으로 해맑아 보였다. 내가 신청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 줄 수는 없었지만, 합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한 신청인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흐뭇했다.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 없는 상대방이 이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경우, 행동을 한 사람은 당혹스럽고 난감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언론의 보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방송국의 보도가 시청률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런데 방송국이 보도를 위해 취재를 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안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이다. 이런 피해자 분들이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보도본부에 알리면, 처음에는 기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 그러다가 답변서를 작성하고 변론에 임하다 보면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가 전쟁을 할 것처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언중위는 의도하지 않았던 오프나 선의의 피해를 조율하고 풀어 가는 화해의 장이 되고 있었다.